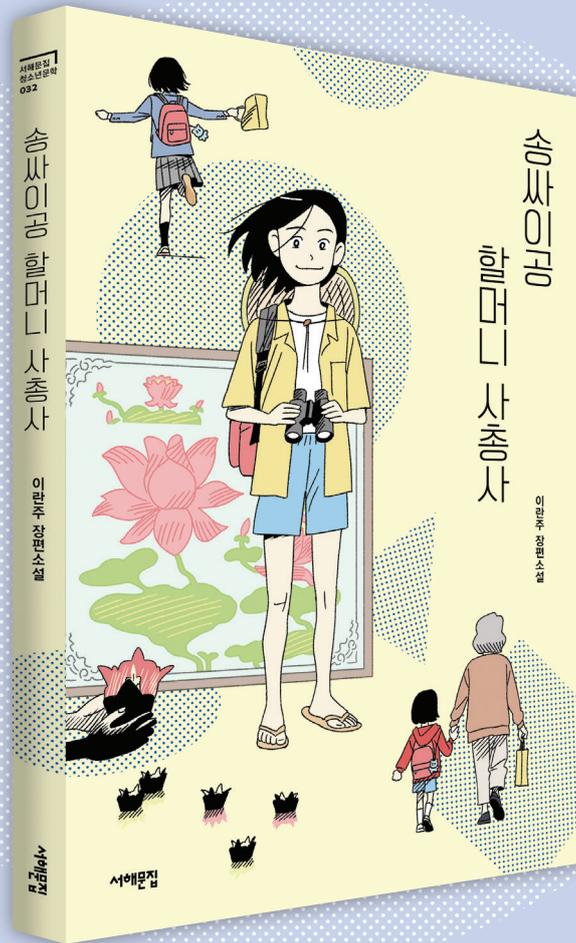


# 독후 활동지



이란주 장편소설 | 200쪽 | 13,800원

- 대 상** 중학생
- 분 야** 청소년 > 청소년 문학
- 키워드** 이주민, 베트남 전쟁, 다문화 가정, 이주 노동자, 미등록 체류 아동
- 작 성** 명일중학교 국어 교사 김정예

## ◆ 읽기 전

1. 책을 읽기 전, 우리가 알고 있는 베트남에 대해 <보기>와 관련지어 이야기해 봅시다.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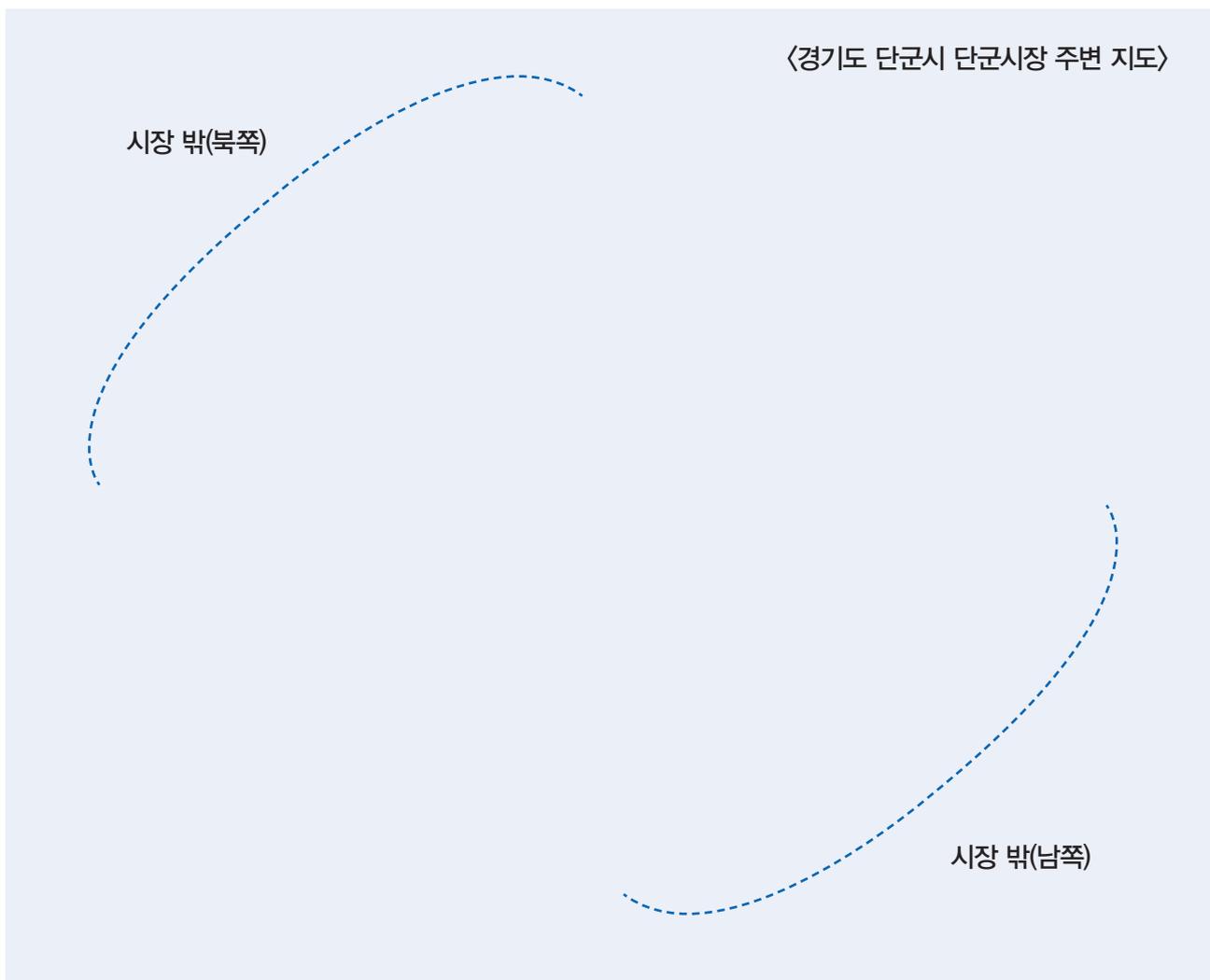
음식 연예인 여행 역사 언어 자연

2. 이 책의 제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라 예상되나요? 등장인물, 소설의 장소, 일어날 사건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 ◆ 읽은 후

### ○ 소설 속 공간 알아보기

1. 소설의 중심 공간인 '송사이공'의 위치와 단군시장 주변을 지도로 그려 봅시다.



1-1. '송싸이공'에 찾아오는 손님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손님의 사연을 들은 할머니들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는지 책에서 찾아 적어 봅시다.

에피소드	송싸이공의 손님들	사연	할머니들의 태도
〈한 달 잔치〉			
〈반뚜 삼촌 이야기〉			
〈보라의 김밥, 지후의 물병〉			

1-2. 내가 '송싸이공의 손님'이라면 할머니들의 태도에 어떤 마음을 느낄까요?

1-3. '수야'는 베트남에서 온 젊은 여성들이 “송싸이공에 와서야 비로소 숨을 크게 쉬고, 까르르 웃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었다. 육아나 쇼핑 정보는 물론, 일자리 정보도 송싸이공에서 얻었다. 여러 회사가 송싸이공에 사람 소개를 부탁했다”라고 말합니다. '송싸이공'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공간일까요?

2. <보기>를 읽고 낯선 곳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보기

영진이 영서 남매를 돌보는 란 할머니는 마음 상하는 일을 한번 겪은 뒤로 동네를 벗어나지 않는다. 아이들과 시장을 한 바퀴 돌고 송사이공으로 쓱 들어오는 것이 정해진 코스다. 큰길 건너편 아파트 단지 경비들은 우리 동네 아이들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지 못하게 한다. (중략) 등근 터널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영서를 밑에서 받아 안는데 누군가 어깨를 쳤다. 경비 아저씨였다. 뭐라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은 할머니. 여러 번 얘기해도 계속 못 알아듣자 점점 목소리가 높아진 경비. 여기 돈 내는 덴가? 당황해서 쭈뼛거리는 할머니. 급기야 아이들 등을 밀어내는 경비. 나가라는 말이구나, 그제야 상황을 알아차린 할머니. 골난 표정으로 할머니 손을 잡아끄는 영진이. 할머니는 부끄럽고 마음이 아팠다. (중략) 한국에 와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란 할머니는 모든 일이 새롭고 두려웠다. 환영받을 곳과 환영받지 못할 곳을 구분하기 어려웠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매사에 조심했는데도 그런 일을 겪었으니 여간 낙심한 게 아니었다.

2-1. 내가 ‘란 할머니’처럼 언어와 문화가 낯선 나라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한 공원에 갔는데 갑자기 그 나라의 사람이 나를 보고 화를 냅니다. 어떤 기분이 드나요? 왜 그런 기분이 드는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2-2. 낯선 나라의 사람이 나에게 어떤 태도를 보여 주면 좋았을지 생각해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3. 아래 기사를 읽고 입장을 정해 친구들과 토론해 봅시다.

2024년 4월 대한민국은 ‘다인종·다문화 국가’가 되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7퍼센트인 260만 2669명이 외국인으로 집계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 비중이 5퍼센트를 넘을 경우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정한다.

다인종·다문화 국가로의 전환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를 고민하는 한국 사회에 해법을 던져 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7만 4521명으로, 전년 대비 8만 2249명이 늘었다.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 수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제 곳곳에서 외국인과 마주치는 일이 낯설지 않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직도 한국인과 외국인이 어우러져 살기 어려운 나라다.

3-1. 시간이 흐른 뒤 《송사이공 할머니 사총사》 속 ‘단군시장’과 ‘단군시장 밖’을 나누는 경계는 유지될까요, 변화될까요? 미래를 상상해 봅시다.

3-2. 여러분은 문화를 나누는 경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점차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입장을 정한 뒤 책 속 등장인물의 행동과 기사를 근거로 들어 친구들과 토의해 봅시다.

경계는 유지되어야 한다	경계는 점차 사라져야 한다

○ 소설 속 문화 탐방하기

1. 소설에는 다양한 베트남 문화가 소개됩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소설에 등장한 베트남 문화 중 인상적이었던 내용 3가지를 골라 적어 봅시다. 그리고 그와 비슷하거나 다른 한국 문화를 써 봅시다.

베트남 문화	한국 문화

2. 이 소설에는 문화를 대하는 태도가 서로 다른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물과 더 닮았나요? 두 인물 중 자신과 유사한 점이 있는 인물을 고르고, 그 이유를 평소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근거로 들어 설명해 봅시다.

'짱 이모'의 시어머니	'프엉 할머니'의 사위(진희 아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짱 이모'가 아이를 낳고 몸조리할 때 미역국을 먹지 않아 꾸중을 함</li> <li>● '수아'가 들고 온 '간험' 냄비를 보고 놀람</li> <li>● 베트남 산모는 미역국을 먹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수아'에게 베트남 음식을 부탁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에서 모셔 온 장모님에게 깽뚫했던 적이 있음</li> <li>● 베트남 아내와 장모님이 집에서 베트남 음식을 먹지 않길 원함</li> <li>● 냄새에 매우 예민하고 까다로워 익숙하지 않은 냄새를 견디지 못함</li> </ul>

2-1. 낯선 문화를 대하는 나의 태도는 ( '짱 이모'의 시어머니 / '프엉 할머니'의 사위 )와 더 닮았다. 왜냐하면

.....

.....

.....

2-2. 위에서 작성한 내용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인물을 더 닮아 가고 싶은지 생각해 봅시다.

○ 소설 속 역사 탐색하기

1. (가)와 (나)를 읽고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가)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가 가게로 들어왔다. 한국 할아버지였다.  
 “저어... 제가 전에 베트남에 갔던 적이 있어요. 오래전이에요.”  
 “여행 갔어요? 언제요?”  
 “아뇨, 여행이 아니라 다른 일로요. ①68년 일이었어요.”  
 “1968년이요?”  
 타오 할머니가 또박또박 되물었다. 고개를 끄덕인 할아버지는 또 뚝을 들이더니 말을 이어 갔다.  
 “저 노인이 뭐라는 거냐?”  
 빠르게 칼질하며 심드렁하게 묻는 프엉 할머니의 질문에 나는 오가는 대화를 통역하기 시작했다.

“베트남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해야겠는데, 베트남까지 갈 형편이 못 돼 여기로 왔습니다. 갑자기 와서 미안합니다.”

할아버지가 눈을 아래로 내려 바닥을 보며 천천히 말했다.

㉠“그해 제가 광남에서 아주 몹쓸 짓을 했어요.”

그 말과 함께 할아버지는 태오 할머니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다. 지팡이를 짚은 손이 와르르 떨렸다.

(나)

“아버지가 사죄하려고 찾아봤는데 여기 계신 분이 크게 다쳐서 말씀을 못 드렸다고 들었어요. 다시 오고 싶으셨지만 기회가 없었어요.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대로 돌아가셨거든요. 저한테 꼭 다시 찾아뵙고 용서를 빌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젊을 때 군인으로 베트남 전쟁에 가셨어요. 광남성에서 작전하다가 많은 민간인을 죽게 했대요. 베트남에 가서 희생당하신 분들 가족이라도 찾아뵙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어서 가지 못했대요. 망설이다 시간만 다 가고 늘어버렸다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가 사죄드립니다.”

아주머니가 의자에서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 모습을 할머니들이 착잡한 얼굴로 바라봤다.

“정작 그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은 이제 가고 없어요.”

1-1. 주변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싶었는데 제대로 사과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때의 상황과 나의 심정을 떠올리며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1-2. (가)의 ㉠68년 일은 어떤 역사적 사건을 뜻하나요?

1-3. (가)의 ‘한국 할아버지’는 왜 그 사건을 ㉠“그해 제가 광남에서 아주 몹쓸 짓을 했어요”라고 표현했을까요? 책 179~180쪽을 읽고 이유를 추측해 봅시다.

1-4. (나)의 ‘아주머니’는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송사이공’에 왔습니다. ‘한국 할아버지’는 어떤 심정으로 자신의 다음 세대인 자식에게 용서를 대신 빌어 달라고 부탁한 걸까요? 여러분이 ‘한국 할아버지’가 되었다고 상상하며 그 이유를 추측하고, 친구들과 생각을 나눠 보세요.

2. 살면서 여러분에게 잘못된 친구가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던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당시 여러분의 심정을 떠올리며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3. 그 친구가 여러분에게 지금이라도 사과를 한다면 화해할 건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이유와 함께 친구들에게 말해 주세요.

4. 그 친구가 여러분에게 사과를 한다면 어떤 태도로 사과하길 원하나요? 친구에게 듣고 싶은 말을 적어 봅시다. 그리고 각자 적은 것을 돌아가며 말해 보세요.

OO아,

미안해.

5. 소설의 마지막 장면을 읽고 친구들과 답해 봅시다.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우리 정부가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응우옌 티탄 씨가 1968년 한국군 청룡부대 군인들이 베트남 팜남성 풍니마을에서 민간인 70여 명을 학살해 가족을 잃고 자신도 총상을 입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우리 정부가 게릴라전 특성상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상 책임을 인정해 ‘대한민국이 3000만 1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이빈 언니가 말했던 그 소송이었다. 한국은 진실을 거부했구나. 사과도 손해배상도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구나.

미안함, 분노, 진실, 그리고 사과와 손해배상.

상추쌈을 손에 들고 나는, 나의 할머니들과 베트남을 다시 생각했다.

5-1. 한국 법원은 응우옌 티탄 씨의 소송에 “대한민국이 3000만 100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어떤 의미일까요?

5-2. ‘나(수아)’는 “사과도 손해배상도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미안함’과 ‘분노’를 느꼈을까요?

5-3. ‘나’는 왜 “사과와 손해배상”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할머니들과 베트남”을 다시 생각했을까요?

6. 책을 읽기 전과 책을 읽은 후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겪었나요? 아래의 단어를 활용해 여러분의 감상을 ‘생각의 변화’를 중심으로 말해 주세요.

베트남-한국 이주민 전쟁 사과와 용서